

책 머리에

한국(남한)이 6월 항쟁으로 독재를 종식시키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성립시키기 시작한 1987년으로부터 이제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독재의 억압을 겪지 않고, 경제적 여유 속에서 자유를 누리며 성장한 세대가 이제 성인이 되었다. 어느덧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문제는 더 이상 절박한 문제로 느껴지지 않으며,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에서 밀려나 버렸다. 그런가하면 소위 남남 갈등이 심화되어 나타나고 있고, 양심의 자유를 구속하는 국가보안법이 임존하고 있으며, 빈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주어진 자유의 소중함을 인식하면서, 당면한 문제를 극복해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의 경제 발전이 어떠한 댓가를 치르며 이루어 진 것인지, 어떻게 하여, 최소한 절차적 측면에서나마 민주주의가 획득될 수 있었는지의 역사를 돌아볼 필요, 즉, 기억의 문화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코레아 포럼 이번 호는 <민주화 20년 기념호>로 발간되며, 이제 막 20년이 지난 한국의 민주주의에 관한 개괄적 평가를 제1특집의 주제로 삼고 있다. 경제 인문 사회 연구소 이사장 이종오와 브레멘 대학 명예교수 홀거 하이데가 각기 한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까지 성취한 바와 더불어 현재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한계,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고찰한 글을 기고해 주었다. 이종오 교수는 소위 »87체제«가 안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사회 정책, 갈등조정 방식, 분단문제와 관련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의 민주주의까지도 이룩할 수 있는 대안적 사회 모델의 모색이 시급함을 설명해준다. 하이데 교수는 노동운동의 시점에서 민주화 과정을 평가하면서, 현 시점에서 과거 청산 작업의 중요성을 살피고 있다. 이 특집의 일환으로 한국에 있어서 독재로부터 민주화에로의 과정을 기억하게 해주는 사진 시리즈를 마련했으며, 여기 실린 사진들은, 독재하에서의 억압과 고통, 저항 그리고 투쟁 속에서의 희망을 담고 있다. 한국 전쟁 중 자행된 노근리 학살 사건의 진상 규명을 다루고 있는 베르닝의 기사는, 그동안 독재 치하에서 공인된 지식이 있았는가 하면 억압된 지식이 있었으며, 민주화의 실현이란, 억압되었던 지식이 해방되고, 강요되었던 침묵을 깨는 작업이기도 함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화 20년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는 또한 현재의 시대적, 사회적 맥락에서 제기되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과제를 인식해야 할 때다. 이런 점에서, 이주시대라고까지 불리우는 오늘날, 전세계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주현상의 맥락 속에서 발생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디언 헐름은 독일에서의 이방인의 문제를, 정귀순은 노동이주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남한 사회의 새로운 이방인들이 처하고 있는 문제들을 사회비판적 시각에서 조명한다. 강정숙,

최세라, 이유재는 독일에 사는 한국인 디아스포라의 입장에서 이주민의 생활 문화적 문제, 정치세력화 문제, 서로 다른 문화와의 상호 문화적 만남의 문제들을 논하고 있다. 영화제작 및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인 2세 이슬기, 최선주는 독일과 헐리웃의 영화 등의 매체 속에서 아시아인이 재현되는 방식을 분석하고 있다.

코레아 포럼 이번 호는, 6월 항쟁 20주년을 맞아 국내, 국제적으로 많은 사업을 주관한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의 후원으로 출간되며, 코레아 협의회는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는 2001년 민주화 운동 정신의 계승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코레아 협의회는 독일의 프리드리히 애버트 재단과 더불어, 금년 9월 15-16일에 개최된 심포지움을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와 공동 주최하였으며, 이번 호에 게재된 이종오, 정귀순, 강정숙, 디언 헐름의 글은 이 심포지움에서 행해진 강연의 원고임을 밝혀둔다.

이제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는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라섰다. 오는 12월의 대통령 선거 결과는 지금까지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앞으로의 한국 민주주의의 향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최현덕, 요한 힐트만, 신효진, 에릭 발바하